

권리금 못받나... 불안한 지하상가 상인들

서울시 권리금 불허 조례에 충금·금남 상인들 불똥 우러 상인들 "웃돈으로 봐선 안돼... 시설비 회수할 수 있어야"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면서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극히 일부입니다.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인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줘야 할 게 아닙니까.”

13일 서울시의 지하상가 점포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소식을 접한 금남로 일대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와 유시한 방식으로 지하상가를 운영중인 광주 지역도 "영세상인들이 권리금 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명동과 강남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2700여곳의 점포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

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임점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조성된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는 한때 총장로와 더불어 광주 지역 최고의 상권으로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전남도청이 무안 납액산신사로 이전하고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 서석로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폐쇄되면서 300여개 점포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금남지하상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지난해 영업을 시작할 때 시설비 5000만원을 들여 가게를 꾸몄다"며 "사정이 생겨 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최

Q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민간부문에서는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만약 임차권 거래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무형의 재산'인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 시설비·철거비 정도는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무조건 근절해야 할 '웃돈'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하상가 점포의 손바뀜은 대부분 기존 상인의 임대차 계약 양도를 통해 일어났다. 잘 되는 가게의 경우 이 과정에서 권리금이 오갔다.

그는 또 "현재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한다면 가게를 접는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약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때 번성했던 지하상가가 쇠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문제는 일부 잘나가는 상가에 국한돼 있다는 게 상인들의 일반적 주장이다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는 또다른 상인은 "권리금 없이 경쟁입찰을 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하상가 입찰에 최고가를 적어 점포를 싸쓸이하면 소상공인들만 밀려난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정천규 전 금남지하상가상인회장은 "지하상가 양도 금지의 대다수 상인의 의견을 배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감사원·행정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74.70 (+16.83)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4)
- ↑ 코스닥 669.23 (+4.37)
- ↑ 환율 (USD) 1128.30원 (+1.00)



광주상의 FTA 실무교육 13일 광주상공회의소 지하 교육장에서 디케이 주식회사와 신흥글로벌 등 광주지역 기업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 발급 실무교육'이 열렸다. <광주상의 제공>

미래 光 의료기술 산업화 모색

한국광기술원 오늘 심포지엄

한국광기술원은 미래 광(光)기반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제7회 광의료 심포지엄'을 14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국내 광의료 관련 산학연, 병원 관계자가 참여해 '광기반 미래 의료기술의 산업화 동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광의료 적용 사례·제4차 산업혁명과 광의료 신사업', '2부 광의료 기기 사업화 추진 사례·미래 광의료 기술 소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조영호 교수와 강북삼성병원 김원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명준 교수 등이 안과 진료에

광의료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광의료 산업이 광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심축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링크옵틱스 등 국내 대표적인 광의료기기 기업 7곳의 사업화 추진 성공사례와 광의료 분야 핵심 기술이 소개 된다.

이병일 한국광기술원본부장은 "광융합 의료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며 "산학연과 병원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의료기기 신산업 창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기청, 제품·공정개선 사업 신청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2017년도 제3차 제품·공정개선 R&D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제품·공정개선 사업은 R&D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과제당 최대 5000만원 ▲개발기간 9개월 이내이며 지원내용은

제품개선과 공정개선 분야로 ▲제품개선 분야는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정개선 분야는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과제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가능하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생산기술과(062-360-9153)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세관 어르신 보호시설 급식 봉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3일 개청 제37주년 맞아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인 광주 성심의 집에서 급식봉사를 실시 하였다.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은 이날 소외된 이웃에게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대접하고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개청 37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새겼다. 양승권 세관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성심껏 보살피는 시설 관계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양 세관장은 또 "세관 본연의 업무인 공정부역 확립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돌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1980년 6월 14일 개청하여 37주년을 맞은 현재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을 관할하는 주요세관으로 발전하였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인적자원개발위 인력 양성 순조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가 운영하는 취업예정자 양성과정과 재직자 향상과정의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인자위는 최근 지역별 광주고용센터 소장, 임찬혁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 김대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행사업을 점검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인자위는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올해 921명 계획의 '상반기 취업예정자 양성과정'에 985명을 모집해 연말까지 약 964명을 훈련시켜 취업률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직자 향상과정'도 올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비 120% 이상을 달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업무능력 향상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서도 '사잇돌 대출'

중(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200여 개 상호금융회사에서 13일 출시됐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판매 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금리는 연 6~14%로 예상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한다.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2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와 1년 이상 농·축·어·업 종사자도 120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연형뉴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 743㎡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상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합니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설망(해안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해남과 편리하게 이동
-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은 우리 해남고, 해남공립고,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법조특화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 불가능! 두번째 시 앞을 열며 프리미엄 가치

분양·임대 1577-1901

세종 I·J·K 금강
신보 I·J·K 금강(주)